Meritz Financial Daily

| 2024. 8. 30 (Fri)

meritz 메리츠증권
금융 Analyst 조아해
02. 6454-4870
like.cho@meritz.co.kr

News

"카뱅 주담대 받은 사람 있나요?"…새벽부터 '오픈런' 속출 — 한국경제 — https://buly.kr/DwCbHyu

중도상환수수료 전액 면제를 내건 카카오뱅크에서는 매일 오전 대출을 받기 위한 오픈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

주담대 취저금리는 주요 시중은행보다 높지만 유일하게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는 점이 고객을 끌어들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

"은행 대출심사 깐깐해졌네"...주담대 확 줄었다, 하루 4천억→500억 — 매일경제 — https://buly.kr/610V9HE

이달 들어 25일까지 5대 시중은행에서 하루 평균 주담대 증가폭은 4261억원이었는데, 26~28일에는 523억원으로 급감

당국의 주문으로 총량을 관리하는 태세에 돌입해 심사를 강화한게 크게 작용했고, 대출금리 인상의 영향도 일부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보여

"금리 내린다는데"…영끌족, 대출 한도 큰 고정형에 몰려 — 뉴시스 — https://buly.kr/1sjnYT

올해 하반기부터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신규 주택담보대출 차주들의 90% 이상은 고정금리를 선택

금리 수준이 변동형보다 낮고 한도는 더 크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보다는 현재 유리한 상황으로 선택이 몰린 것

우리은행 부당대출 사태에…은행권, 책무구조도 제출 '속도' — 뉴스1 — https://buly.kr/CB31TrK

잇따른 금융사고 발생으로 은행의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은행들이 책무구조도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는 분위기

현재 금융사 중 신한금융이 책무구조도 준비에 한 걸음 앞서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최근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이 대두된 우리금융이 서두르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와

한투·메리츠·키움·삼성증권, 부동산개발 자금조달 '두각' — 딜북뉴스 — https://buly.kr/GvlTxuK

금융당국의 사업성 평가 강화 주문으로 기존 대주들이 대출 연장 및 신규 참여에 어려운 가운데 한국투자증권, 메리츠증권, 키움증권, 삼성증권 등 4사가 PF시장 자금줄 역할을 수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기관이 신용 보강해 발행한 PF유동화증권이 1조6100억원이었는데 이 중 한국투자증권이 가장 많은 3540억원의 신용을 제공

부실PF 14조 경공매 보낸다 … 예상치 두배 — 매일경제 — https://buly.kr/Gkqiz7N

정부가 부동산 PF 사업장 중 연체 또는 만기 연장 3회 이상 대상으로 1차 사업성 평가를 진행한 결과 정리 대상 여신이 총 21조원으로 집계… 이는 전체 익스포져의 9.7%

특히 경 · 공매 대상인 부실 우려 사업장이 6.3%로 나타났는데, 이는 올해 5월 금융당국이 예상했던 수준인 2~3% 대비 2배가 넘는 수치

한화생명금융서비스, 부산 대형 GA '아이에프씨그룹' 지분 인수 방식으로 M&A 한다 — 보험저널 — https://buly.kr/5fAzBjM

한화생명 자회사 GA 한화생명금융서비스가 2000여명 규모의 부산 대형 GA 아이에프씨그룹을 인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업계 관계자들은 한금서가 2026년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업 가치를 평가받기 위해 공격적인 규모 확장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 경쟁 끝… 이제는 보장 경쟁 — 조선비즈 — https://buly.kr/uSWhi6

암에 이어 3대 질병을 보장하는 단기납 종신보험이 등장

생명보험사들은 지금껏 이자율(해지환급률)을 높이며 경쟁해 왔는데, 이제는 질병 진단 시 사망보험금을 2배 이상 지급하는 등 보장을 강화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